

기약없는 AI 기능... 韓, 1차 출시국 의미 퇴색

애플 아이폰 16시리즈 공개

전작 대비 성능·기능 변화 미미
AI서비스 한국어 지원일정 미정
판매량 늘리기 위한 꼼수 지적도

애플의 첫 인공지능(AI)폰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됐지만 국내외서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AI 기능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음에도 한국어 지원 일정은 알려지지 않아 국내 사용자들의 사용 시점은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국이 1차 출시국으로 포함됐다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능은 개선하지 않은 채 판매량만 늘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결국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성급히 신제품을 내놓았다는 혹평이 이어지면서 '반쪽짜리 AI 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애플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는 오는 13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20일부터 매장에서 본격 판매된다. 이번 신제품은 애플의 첫 온디바이스 AI폰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애플은 출시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의 애플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회에서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있다. /뉴시스

전부터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애플의 첫 'AI폰'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아이폰16에는 새로운 A18 칩이 탑재됐다. 이전 프로세서보다 30%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가 급하게 쓴 메모를 AI가 대신 정리해주는 등의 기능을 갖췄다. 메모·전화·애플리케이션(앱)에선 음성 녹음, 요약 등도 가능하다. 통화를 마치면 AI가 내용을 요약도 해준다. 또 사진첩에서 보고 싶은 사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찾아주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 출시 이후 최초로 한국이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됐

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2009년 국내에 처음 아이폰이 출시된 지 15년 만이다. 또한 애플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던 분실 제품 찾기 기능을 내년 한국에 도입한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AI 기능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애플의 생성형 AI 기능은 내달에서야 미국에서 일부 기능만을 선보이고, 한국어 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식 버전은 오는 12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출시된다. 내년엔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로도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아이

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으면서도 A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어 버전 도입이 빨라야 2년 뒤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의미가 성능은 개선하지 않은 채 판매량만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AI를 제외한 다른 기능들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작과 비슷한 수준인 GPU와 램을 탑재했으며 무게는 10g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아이폰 16프로(256G)의 출고가는 약 170만원으로 아이폰 15프로(256G) 보다 20만원 이상 비싸 가격을 책정했다.

일각에서는 생성형 AI의 후발주자인 애플이 위기감을 느껴 영어 버전만 성급히 개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애플 인텔리전스는 수많은 지연에 직면해 있고 많은 주요 기능은 내년이 돼서야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구매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하며, 아이폰 16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

하이닉스 등 참여... 3272억 규모

SK그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약 327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에는 SK하이닉스(1210억원), SK텔레콤(1260억원), SK㈜ C&C(400억원), SK실트론(276억원), SK에코플랜트(94억원), SK케미칼(24억원), SK㈜ 머티리얼즈(8억원) 등 7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해당 관계사들은 협력사 납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SK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도 각각 1676억 원, 2116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한편, SK그룹은 추석을 전후해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신장 온누리상품권 약 137억 원 상당을 구매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한화그룹

'다이나맥' 지분 공개매수

한화그룹이 싱가포르의 부유식 해양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다이나맥 홀딩스'(이하 다이나맥)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에 나선다. 다이나맥은 싱가포르 상장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12일 싱가포르 현지 SPC(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다이나맥 지분을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매수가는 1주당 0.6싱가포르달러로 설정했다.

두 회사는 이번 매수에 약 6000억원(지분 100% 확보 시)을 투자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

연성동박적층판 공장 준공

두산이 AI, 5G, 자동차 전장부품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두산은 12일 전북 김제 지평산업단지 내 하이엔드 연성동박적층판(FCC L) 공장 준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공장은 8만2211㎡(2만4860평) 부지에 건축면적 1만3000㎡(3930평) 규모다.

준공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문홍성 두산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

김제공장에서 제조하는 캐스팅 타입 F CCL은 동박 위에 폴리이미드(PI) 레진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각 수 차례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라미네이션 타입에서 PI 필름 역할을 하는 PI 레진을 직접 개발해야 해 제조공정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전파손실이 적고 굴곡도가 높은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GM, 미래 모빌리티 협력... 정의선 "고객가치 제고"

(현대차그룹 회장)

양사 포괄적 협력 MOU 체결 배터리 원자재 등 통합 소싱 검토

대한민국과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와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이하 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현지(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협약서에서 서명을 하고 있고 있다.

상용 차량, 내연 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이다. 또 배터리 원자재,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통합 소싱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양사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는 "양사

/양성운 기자 ysw@

의 이번 파트너십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능력 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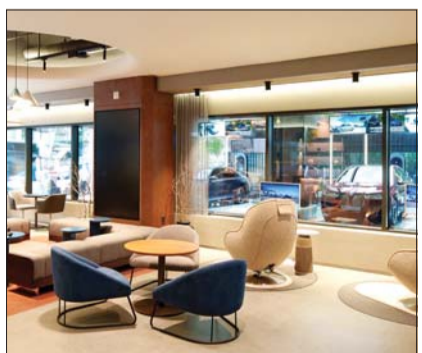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걱정마세요"... BMW, '차징 허브 라운지' 오픈

충전·휴식 복합공간... 차량 전시도

"전기차 부담없이 충전할 곳은 없나?" "충전은 잘되고 있을까?" "충전되는 동안 뭐하지?"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BMW그룹코리아가 이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오픈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음료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BMW 코리아가 지난 2014년 인연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를 오픈하며 차량과 트



BMW그룹코리아가 12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공식 오픈한 신개념 공공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 모습 /BMW그룹코리아

랙 등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전기차 충전 공간에 대한 혁신

을 이어가고 있다.

BMW그룹코리아는 서울역앞에 신개념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과 휴식을 결합한 이곳은 BMW그룹이 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라운지형 급속 충전소다.

BMW뿐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차주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간을 그저 충전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BMW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라운지는 200kW(킬로와트)급 급속 충전기 6기와 카페 등으로 구성됐으며, BMW 럭셔리 클래스 모델 혹은 다양한 한정 에디션 모델을 위한 차량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다.

GS차지비가 충전사업자로서 전체 충전 서비스를 운영하고, 라운지는 파르나스 호텔이 담당한다. 특히 충전 구역에는 스프링클러를 3중으로 설치하고, 열화상 폐쇄회로(CC)TV 및 소화장비가 비치돼 안전에 대한 남다른 노력도 느낄 수 있다.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LG전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충전 절차 간편화 서비스 '플러그 앤 차지'(PnC)가 오는 11월부터 지원된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